

# 여성노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돌봄 윤리의 재구성

신경아\*

##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맥락에서 여성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구술생애사를 선택하였으며, 노인 3명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며느리나 딸-과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는데,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황 속에서 연구가 수행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화기술지적 방법론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세 명의 노인의 구술은 ‘분노하는 어머니와 벗어나고 싶은 며느리’(여정순씨), ‘외로운 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갖지 못한 며느리’(이순영씨), ‘자식세대에 적응하려는 어머니와 보이지 않는 며느리’(권영경씨)로 각각 정의될 수 있지만, 세 사례에서 공통된 사실은 소통과 공감의 부재였다. 이 중 이순영씨는 가부장적 가족관습 속에서 자신과 며느리의 위치가 갖는 동질성을 인식하고 며느리 돌봄에 대한 기대 역시 여성에게 지워진 차별적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암시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조건 속에서 돌봄의 두 주체-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가족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이해라는 젠더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주제어:** 노인 돌봄, 단절, 구술생애사, 페어 연구, 효 규범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hina@hallym.ac.kr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2011) pp. 197-226

© 2011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 1. 문제제기

노인 돌봄(elder care)에서 '젠더'는 핵심적 문제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의 당사자인 노인과 그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족, 돌봄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의 차이로 여성노인이 많고 그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 이들도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효(孝) 규범에 의해 노인 돌봄을 며느리의 역할로 규정해 온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젠더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젠더 문제의 지형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영란, 2005). 당초 정부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제도 사용자가 훨씬 늘어났고,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가족이나 여성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김정석, 2005; 김혜경 외 엮음, 2011; 박경숙, 2003; 박영란, 2005; 석재은, 2006). 사실 노인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부담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며느리의 부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수영 외, 2004; 김윤정·최혜경, 1993; 서인순, 2002; 우국희, 1997; 윤가현, 1998; 이가옥 편저, 1999; 이경자, 이명선·이봉숙, 2006; 이봉숙 외, 2004; 1995; 한경혜, 1998). 이에 비해 노인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최근에 이루어져 왔다(박경숙, 2004; 신경아, 2010, 2011; 정경희 외, 2004; 정진웅, 2006). 노인 돌봄이 가족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당사자인 노인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글은 여성노인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노인 돌봄의 변화를 여성노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노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가족 내 여성에게 할당하는 사회 제도와

관습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효(孝) 규범의 존재 덕분이었다. 유교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시부모 부양에 두었던 부덕(婦德)과 효 사상은 다른 가문에서 시집은 ‘외부인’인 여성에게 돌봄노동을 부과하면서도 그것을 인륜이나 천륜과 같은 도리(道理)의 영역에 둠으로써 그 합리성에 관한 논의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따라서 노인 돌봄을 가족에서 사회로 끌어내려는 노력은 젠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돌봄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해 온 사회제도와 관습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노인과 그를 돌보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권력 관계 역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늙어 병들면 당연히 며느리의 수발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진 노인과, 시부모 수발을 자신의 주요 책임으로 설정하지 않는 며느리의 존재는 노인 돌봄을 규범적 의무에서 상호호혜성이나 그밖의 다른 성격을 가진 도덕적 기반 위로 옮겨놓는다. 그리고 이처럼 새로운 도덕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돌봄 관계는 당사자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권력과 지위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여성노인은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며느리에 대한 돌봄 기대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노인들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맥락 속에서 ‘시어머니-며느리’라는 돌봄을 둘러싼 두 당사자 간의 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규범적 기대를 실현할 수 없게 된 시어머니인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 살펴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이론적 배경

한국사회에서 노인 돌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전통적 자원은 효

규범이다(박경숙, 2003, 2007). 늙어 병들고 쇠약해진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며, 이를 위한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며느리인 여성의 의무라는 윤리적 규정이다.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윤리적 기반인 효 규범은 노인과 그를 돌보는 며느리 여성 사이의 관계를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규정했다. 돌봄의 수혜자인 노인은 가족 내 권력을 가지며 돌봄을 그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데 비해, 돌봄의 제공자인 며느리 여성은 가족 내 가장 낮은 지위에서 돌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돌봄을 둘러싼 이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며느리 여성 역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자식 세대, 자신의 며느리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암묵적 기대 위에 성립하였지만, 돌봄의 수혜자인 노인의 권력과 권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돌봄의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에 내재하는 이러한 관계는 서구의 현대적 맥락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서구 현대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정의된다(허라금, 2006). 따라서 노인 돌봄을 비롯한 돌봄 영역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독립’과 ‘의존’의 이분법이다(Dean, 2004; Sevenhuijsen, 2003).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을 ‘독립’적인 존재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인식론은 노인 돌봄을 이분법적 구도로 설정해 왔다. 돌봄을 받는 노인은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인 독립을 추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구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서구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조건을 종속성, 존엄성의 침해, 온정주의(paternalism)의 틀 속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Clements, 1996; Fraser, 1995; Fine and Glendinning, 2005).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과 공공 담론에 내재된 이러한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그 위계적 성격을 지양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 왔다. 사실 돌봄을 주고받는 행위 그 자체는 상호호혜적(reciprocal)이지 않다(Kittay,

2002).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돌봄에 대한 욕구가 절실한 것이지만, 제공자에게 그것은 스스로의 욕구가 아닌, 의무나 책임으로 주어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돌봄은 그 자체가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키테이(Kittay)나 세븐위젠(Sevenhuijsen), 다니엘스(Daniels) 등은 돌봄의 문제를 생애 전반의 스펙트럼에 놓고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키테이(1999, 2002)는 개인을 생애 전반에 걸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호혜적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로 설정한다. 세븐위젠(1993, 1998, 2003)은 민주적 돌봄 윤리(democratic ethic of care)를 제시하는데, 모든 사람은 돌봄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며, 인간의 취약성(vulnerability)은 모든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므로 독립이나 자유 역시 상호의존적 돌봄이 없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재론적 상황을 독립이 아니라 의존과 돌봄을 전제로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니엘스(2002)도 생애적 접근(lifespan approach)을 제시하여, 우리는 모두 늙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는 전 생애에 걸쳐 어떤 생애 단계도 평가절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해 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논의들은 모두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의존성과 취약성으로 보고 그것에서부터 독립과 자율성,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도출해내고 있다. 결국 의존은 독립과 대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다. 의존과 독립이 이분법적 범주가 아니라 실은 상호 밀접히 관련된 상태임을 고려함으로써 진정한 독립성, 즉 관계적 자율성을 획득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효 규범은 어떤 의미에서 의존을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돌봄의 호혜성을 구성해가는 서구의 새로운 논의와 연결되는 지

점이 있다. 의존 상태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다시 부모를 돌본다는 생애 전반에 대한 통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애과정적 호혜성은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이며, 노동의 부담을 여성이 전담하도록 규정하므로 젠더 불평등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노인 돌봄의 변화는 이같은 젠더 불평등성을 해체해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규범적 대칭성-자신이 의무를 다했을 경우 같은 혜택이 권리로 주어지는 조건-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노인, 특히 돌봄노동을 전담했던 여성노인들이 경험하는 박탈감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분석과 이해를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여성노인들의 돌봄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구술생애사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보류하고 구술자의 목소리를 연구의 중심으로 가져오며 구술자의 실제 경험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듣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구술생애사는 ‘사실적 진실’과 ‘서사적 진실’을 구분하여 구술자의 체험을 통해 의미화된 경험을 드러내고 구술자가 가진 생애 해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된다. 자신이 지녔던 규범이 붕괴하는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혼란과 갈등을 수습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 구술생애사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구술생애사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관심 주제에 따라 크게

개략적인 질문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중요한 사건들과 기억들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전반에 대한 기술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노년기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노인들 스스로의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성역할, 일과 직업의 변화, 친구와 이웃 등 전반적인 인간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노인의 일상생활로서 현재 겪고 있는 일상적 경험에 대한 기술, 즉 몸의 변화, 심리적 상태의 변화, 자주 경험하는 감정과 느낌, 떠오르는 생각들 등을 둘러보는 것이다. 네 번째 질문은 현재 겪고 있는 노년의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유년기의 경험들에 대한 회고이며, 다섯 번째 질문은 자신의 노년과 부모 세대의 노년을 비교하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노년기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맥락들, 즉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조건, 노년기를 둘러싼 문화적 상황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구술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흘러갔다. 연구자가 질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돌봄 상황의 문제와 자기 감정을 구술하였고, 이를 자신의 전(全) 생애적 맥락에서 스스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인터뷰 초반 생애 이야기의 전체적 틀이 제시될 때 주의깊게 경청함으로써 구술자들이 의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술자 인터뷰와 함께 본 연구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 즉 며느리와 딸에 대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노인들의 돌봄 상황을 이해하고 며느리나 딸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인터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또한 노인의 생활공간인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덕분에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sup>1)</sup>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는 모두 3명의 여성노인과 그들의 며느리 또는 딸이다. 구술자들의 연령대는 70-80대이며 중산층 2명과 하층 1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남편과 사별하고 독신으로 지내며 자식들과 살거나 혼자 살고 있다. 노인들은 연구자와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지인이거나 그의 소개를 받아 인터뷰 당시의 돌봄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덕분에 인터뷰는 돌봄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구술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2008년 5월에 연구참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3-5시간이 소요되었다.<sup>2)</sup>

## ① 권영경씨(74세, 중산층)

교사생활을 하다가 공군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1녀 2남을 낳았으나 37세 되던 해 남편이 월남에서 전사하여 홀로 자식들을 키웠다. 현재는 아들 둘이 대기업 임원으로 있고 둘째 아들 내외와 손자 둘을 키우며 한 집에 살고 있다. 며느리가 대학에서 일하며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안 살림 관리와 저녁 식사는 권영경씨가 도맡아 한

- 
- 1)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구술 자료는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던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구과제 ‘노인 돌봄의 경험과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 연구팀에서 필자가 수행한 인터뷰 결과이다. 이 자료는 필자의 다른 연구들 -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2011), “노인 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전(前)과 후(後)”(2010)-에서도 사용되었다.
  - 2)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은 페어 연구(pair-study)의 가능성이었다. 돌봄을 받는 노인과 그를 돌보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인터뷰해야 하므로,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를 선택했고, 계층적으로 중산층과 빈곤층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는 여성노인의 경험 중 일부를 보여줄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여성노인의 돌봄 경험과 의식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권영경씨는 아들 내외와 사는 것에 대해 “자식들이 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네들을 데리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에는 군인 유가족에게 주는 연금이 있다. 월 300여 만원이 넘는 연금 덕분에 권영경씨는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손자들에게 선물도 사주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권영경씨와의 인터뷰에는 딸 구경하씨가 참여하였다. 경하씨는 전업주부로 고등학생인 딸 하나를 키우며 일주일에 여러 차례 어머니를 찾아와 말벗도 되고 일상생활을 돕는다. 권영경씨가 최근 허리 수술을 한 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 어머니를 부축하는 등 크고 작은 도움을 준다. 반대로 권영경씨는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옷을 사준다거나 손녀의 학원비를 도와주는 등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다.

## ② 여정순씨(87세, 하층)

여정순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 부산에서 장사(포목업)를 했지만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자식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이주,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들 넷을 두었으나 경제력이 없던 장남이 그나마 2년 전 사망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차남이 월세로 얻어주었고 생활비는 셋째 아들이 월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지탱하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여정순씨가 서울로 오는 대신 다른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주하기를 바랬지만 여정순씨가 고집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째 며느리와 사이가 더 멀어져 지금은 전화 통화도 잘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첫 아들의 장녀, 즉 큰 손녀의 대학 학비를 다 대어주었지만, 손녀가 취직 후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막내 아들은 미국으로 가 사업에 실패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세 아들과 네 명의 며느리들이 잘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셋째 며느리

인 오경선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청소와 음식 만들기 등을 돌봐 주고 있다. 오경선씨는 자신이 셋째 며느리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신 몸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정순씨는 현재의 상황이 “기관(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선택이며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 ③ 이순영씨(73세, 중산층)

이순영씨는 16년 전 남편을 여의고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서 주말 부부인 셋째 아들과, 이웃에 둘째 아들 며느리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 함경도가 고향이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찾으러 엄마와 남쪽으로 내려온 그녀는 38선이 막히는 바람에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무남독녀”로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란 데다 결혼한 남편 역시 이북에서 훌훌 단신 남하한 분으로 “자식을 다섯 명쯤 낳고 싶었지만” 생활고를 걱정할 남편의 반대로 아들 셋을 두었다. 16년 전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한 달만에 사망하자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삶을 포기하려 했지만 자식 생각과 종교(가톨릭)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노년의 외로움과 며느리들과의 갈등, 어머니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아들들에 대한 실망 등으로 감정적인 고통을 여러 번 겪었지만, 신앙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주위와 화해할 수 있었다.

둘째 며느리 이정란씨는 전업주부로서 7년 간 이순영씨와 함께 살다가 지금은 부근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순영씨가 노인성 질환 이외에는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다만 식사나 일상생활에서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은 가지고 있다.

#### 4. 사례 분석: 의존과 단절의 경험

##### 1) 여정순씨: 분노하는 어머니와 벗어나고 싶은 며느리

이순영씨, 여정순씨, 권영경씨는 모두 독신으로 혼자 살거나 자식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자식이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혹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여정순씨의 경우로 세 아들과 네 며느리를 두었지만 셋째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자식들과의 왕래나 소통이 매우 드물다. 특히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서울 이주를 둘러싼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현재는 자식에 대한 실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 자신이 요구한 대로 서울로 이주했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까지 대면서 키운 큰 손녀가 찾아오지 않는 데 대한 노여움이 크다. 여정순씨의 생애 구술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여정순: 자식 며느리는, 내가 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게, 참 아무 저거 없이 키웠는데, 하나는 갔버리고 나니까, 음, **손주도 남이고**… 내가 와서 볼때게 참 기가 막히는데, **자식이고 손주도 그렇더라**. 손주를 그렇게 키와도 나를 돈으로 달라는 것보다도, 내가 가진 거 없이, 내가 여기에 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솔직히 자식한테 신세를 저서 자식이 나를 갔다가 **꽈!꽈!** 이렇게 하고, 자존심 상할 정도면, 내가 안 있어요. 내가 나가지 내 성격에서, 난 부산서 그 집에서 그 가게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죽어도, 죽으면 결국 병원으로 가서 죽을끼고… 아니, 조금에 적어먹어도 나는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저 산이, 숲이 높고 산이 높다시고, 난 내 자식만 키와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나 하나 몸은, 내가 이리 생각을 하고 키웠는데, 과연 생각해서 며느리를 봐볼 때 그게 아니더라 이거라.

한편의 긴 서사를 담은 여정순씨의 생애 구술의 도입부이다. 공들여 키운 자식과 손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그것을 아들보다는 며느리와 의 갈등으로 해석하려는 현실 회피적 모성이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의 구술에서 일관된 정서는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비통함이다.

여정순씨의 구술은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요리와 청소를 해 주는 셋째 며느리가 방문하는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러나 질문은 별도로) 이루어졌다. 방이 하나인 아파트(방과 거실 사이에 문이 없이 환히 트인)에서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따로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터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인터뷰 동안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방에서, 그것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아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연구자에게 자신의 속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 또는 시어머니가 상대방의 인터뷰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위반” 또는 “개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돌발적 상황은 오히려 두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여정순씨가 “시설”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나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다른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서 며느리인 참여자는 갑자기 큰 소리로 반대를 하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가 관리하기 나름이다. 남자가 자동차면, 여자는 운전수다”라는 이야기, 즉 자신의 아들들이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며느리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할 때 며느리 오경선씨는 매우 기분 나빠했다. 반대로 며느리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자리를 피해주겠다는 표시로 밖으로 나가 산책하겠다고 했으나 나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이런 저런 참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듣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 주었다.

여정순씨는 네 명의 며느리 중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청소와 빨래, 음식을 해주는 등 자신을 돌보아 주는 며느리에게 매우 깊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신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남편이 셋째 아들이라 형님들에게 “밀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며느리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의무”라고 단정지었다. 그녀에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경제적 상황이나 규범적 조건 때문에 약자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떠맡아야 하는 부담이며 벗어나고 싶은 구속이었다.

## 2) 이순영씨: 외로운 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갖지 못한 며느리

여정순씨의 구술에 비해 이순영씨와 권영경씨의 구술은 중산층 여성의 경험답게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 좀 더 감정적인 기복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순영씨의 구술로, 남편과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극단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온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E1)이순영: 한 달 사이에 나는 두 번에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그 당시 너무 속상하고 또 그러고 영감 하 날 정말 의지하고 살았는데 (울음을 참으며) 뭐라고할까 친구도 별로 없지 그리고 또 형제도 없지 그러니까 전 영감 하나를, **그리고 그 두 분을 딱 보내고 나니까는 하나도 안 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자다가 별안간에 (울음) 별안간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다니깐.

(Q1)연구자: 네... 그러셨을 거 같아요.

(E2)이순영: 아니... 두 분을 다 보내고 두 달만에 집을 나 혼자 들어 오는데 너무도 너무도... (울음) 아! 그때 너무 정말 살기 싫었어. 너무 쫓

아가고 싶더라고. 자다가 별안간에 딱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그랬는데 그때 또 자식들이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죽으면은 자식들 가슴이 못을 박고 가는구나. (한숨) 그때 정말.. 그래 가지고 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되는구나.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속상해할까. **나 하나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애들 가슴에 못을 박고 가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싫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냥 누구의 이런 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슬픔, 참 **그 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은 누구한테도 말 못하겠어. 어떤 위로도 말이 안 돼. 누가 뭐라는 것도 귀에 안 들어와요.**

인터뷰 도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몇 차례 말이 끊겼던 이순영씨의 생애 구술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이순영: 나는 싫어 당신 없으면 못살아. (웃음) 정말 못살 꺼 같더라구요 그 짝을 내가 형제가 많았어도 그렇게까지, 그리고 또 영감님이 정말..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가정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리며) 자기 아들하고 나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가정을 부모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가고나니깐 참 살 맛이 만나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성당도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 거부하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저 사람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살려고 했는데 왜 불려가셨을까? 그러니깐 **하나님도 밋더라구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수녀님 나 정말 성당오기 싫어요.” 그랬더니 수녀님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루치야야 니가 어디를 갈 때 이쁜 꽃을 딱 보면은 딱 꺾고 싶지? 꺾지?”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죠 이쁜 꽃을 보면은 꺾고 싶고 내가 또 꽃아놓고 싶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을 꺼래 “우리 루치야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고 꼭 필요해서 꺾어가셨을 꺼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아! 그랬을 때 나는 그 다음부터 꽃꺾기가 싫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디 가면 꽃을 꺾기가 싫고 꽃 꺾는 거 저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꽃도 안 르거든.**

남편의 죽음을 꺾인 꽃에 비유한 수녀님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꽃을 꺾기는 커녕 키우는 것조차 싫어졌다는 비유는 그녀가 겪은 슬픔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후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슬픔에서 벗어났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서 자신을 위로해주리라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거리감을 느끼고 갈등을 겪는다.

(E5)이순영: 제가 우리 친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1호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됐어요.

(Q)연구자: 그런가요?

(E6)이순영: **마흔 여덟에 시어머니를 만들어 왔으니**, 우리 아들이 참 거 서로 학교에서 커플로다가 맺어져가지고 졸업식날 기어코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마흔 여덟에 시어머니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장가간다는 거 그때 스물여섯에 우리아들이 장가를 갔는데...(중략)...(E7) 며느리를 처음에 맞고 보니까는 나는 시집살이를 안해봐서 그걸 몰랐는데 그 며느리의 예전에 그 교제하며 들락거렸을 때 그 좋은 점은 어디로 다 가고 안보이고 왜 그렇게 눈에 못마땅한 것만 보이는지 잘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걸해도 마음에 안들고 저걸 해도 마음에 안들고. 근데 우리 며느리도 이제 또 학교만 다니다가 왔으니 몰 할줄 알아 졸업하자마자 왔으니 아무 것도 할줄 모르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좌불안석이고 그래서 저 한 정말 육 개월을 참 많이 고민했어요. (E8) 이걸 아는데 나는 예전에 내가 다른 우리 친구들이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은 “야 그것도 이해를 못하니 그것 좀 이해하지 시어머니나 부모나 똑같지 않느냐고.” 나는 시집살이를 안해봤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막상 시어머니가 되어보니까는 **아 이걸 정말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왜 이렇게 이걸 안되는걸까 나는 맨날 그랬거든.** “딸이 없으니까 며느리 들어오면 딸 같이 사랑할 거야.” 늘 이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사람이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해서 이게 안될까 그래서 한 육 개월을 정말 울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중략) (E9)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 뭐, 정말 하다 못해 집을... 집을 전세를 사고도 엄마 집 팔았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넓은 데로 전세를 가요. 막 이렇게 하고 자기멋대로 했을 때 통곡하고 울었

어요 처음에는 많이 울었죠. 아 그리고 아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지금 애들도 다그래요. 옛그저께도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은 일절 안해요) 우리 나는 아들하고 애기보다 며느리하고 애기 많이 하고 며느리들도 나하고 애기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집 이사 가요.” “어디로?” “집이요”. 예전에 사농은, 한 오년 전에 사났대요. 오년 전에 사났는데 사농고서리 그때 그 미국을 가느라고 자기가 애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그것도 참 미치도록 분하고 속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쁜 일인데 집을 샀으면은 “어머니 어머니 저 집 이거 살 켜데 같이 구경 가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을텐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말 무시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 비슷한 거를 우리아들한테 했더니 하는 소리가 “엄마가 다 신경쓰고 걱정하실까봐 엄마 편안하게 해드릴라고 다 그런 말 안한 거예요. 결과만 얘기할게요. 과정은 얘기 안할게요.” 이러더라구요. (E10) 근데 “야 가족이라는 게 뭐냐? 너는 완전히 나를 지금 산송장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건 완전히 송장이야. 이거 정말 분해서 못살아.” 정말 분해요. “완전히 날 땅속에 안들어간 거뿐이지 이게 가족이라는 게 모야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 게 가족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니? 완전히 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그래 나 죽었어. 이젠 일절 나한테 오지마. 전화도 하지마.”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위의 첫 구절은 자신이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 마흔 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흔 여덟에 시어머니를 만들어 놓았다”고 표현함으로써 시어머니라는 자신의 위치가 선택이기보다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 준다. 그로 인한 “황당함”에서 시작된 시어머니의 삶은 역시 순탄치 않아 이해할 수 없는 며느리로 인해 고민을 거듭한다. 특히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분노했던 것은 어머니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였다.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크고 작은 일에서 어머니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는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노한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소통하려는 욕망,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소통하려는 갈망을 가진 존재라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순영씨의 인터뷰는 다른 인터뷰와는 달리 돌봄 제공자, 즉 며느리와와의 인터뷰부터 시작되었다. 며느리의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이것이 시어머니인 이순영씨와의 인터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방법론적 규칙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인터뷰 참여자인 며느리는 이순영씨의 둘째 며느리로서 결혼 후 7년간 함께 살다가 분가하여 현재는 부근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시어머니와 면식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도 시어머니의 문제로 질문을 받는다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준 사람답게 며느리 이정란씨는 밝은 인상을 주고 시어머니와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막 시작할 때 시어머니인 이순영씨가 다른 방으로 나가는 순간 연구자가 던진 질문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다. 연구자가 며느리에게 그동안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변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자리를 옮기던 시어머니가 “난 변한 게 없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말에 뒤이어 며느리는 “아네요, 어머님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하면서 웃었다.

며느리 이정란씨는 16년전에 시집을 와 7년간 한 집에서 살고 그 이후에도 한 동네에서 살아왔지만, 시종일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 집에 살았지만, 늘 성당의 봉사활동이나 여행 등으로 “집 안에서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하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어머니와의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 시게 된 것은 결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시외조모와 시아버지가 한 달 사이에 돌아가시면서부터였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집 밖에서 거의 사시

다시피 했지만, 왜 그러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으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지금도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비해 시어머니 이순영씨와의 인터뷰는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의 심각성과 깊이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성을 지닌 한 인간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러티브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온 ‘무남독녀’인 한 여성이 50대 중반 한 달 사이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극단적인 외로움에 직면하다가 신앙과 봉사,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둬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해 온 사례였다. 내러티브 전체에 고통스러운 경험과 감정의 고양, 그에 대한 성찰과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가득 찬 그의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기를 맞은 여성이 겪는 전형적인 경험과 그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내러티브는 “시어머니와의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며느리의 이야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한 집에 살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소통하지 못해 온 것이다. 오히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시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성찰의 과정으로 의미화하였다.

### 3) 권영경씨: 자식세대에 적응하려는 어머니와 보이지 않는 며느리

권영경씨의 경우는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고 자신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뷰를 위해 권영경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연구자는 적당한 선물을 고르다가 부근 꽃집에서 작은 화분이

몇 개 들어있는 바구니를 샀다. 권영경씨의 집에 처음 들어서서 인사를 하고 바구니를 내밀자 첫 마디가 “아이구, 우리 영진에미(함께 사는 며느리)가 좋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집안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큰 가족 사진이 눈에 띄어 연구자가 유심히 바라보자 권영경씨는 “이 사람이 우리 영진에미예요”하며 사진 속의 한 여성을 가리켰다. 사진은 권영경씨의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딸 내외와 외손녀 등 12명의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영진에미”라고 불리는 동거하는 둘째 며느리에 대한 권영경씨의 의식을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었다.

연구자가 둘째 며느리는 언제 들어오느냐고 묻자, 권영경씨는 “매일 저녁 아홉시나 열시가 넘어야 들어온다”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요즘 학위논문(박사과정)을 쓰느라 그렇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 경하씨가 늘 그렇지 않느냐며 어머니를 타박했다. 밤늦게 들어오는 며느리(올케)에 대한 시누이 경하씨의 섭섭함이 읽혔다. 인터뷰 내내 남 앞에서 며느리에 대해 ‘홍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긴장이 느껴졌다.

권영경씨는 인터뷰에서 두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생애 구술 어디서든 며느리와의 관계가 가깝게 그려지지 않는 데서 읽을 수 있다. 그녀의 구술에서 직접화법으로 등장하는, 친밀한 존재들은 두 명의 손자, 특히 둘째 손자와 큰 아들이다. 며느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는 부정적인 기억들이며, 특히 함께 살고 있는 둘째 며느리는 그녀의 생애 구술 내내 배경인물이 되고 있지만, 어디서든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권영경씨와의 인터뷰 자리에는 딸인 구경하씨가 함께 있었지만, 그녀의 생애 구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둘째 며느리였다. 구술 내내 그녀는 둘째 며느리를 의식했으며, 마치 며느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Q1)연구자: 살아오면서 자식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뭐 먼 변화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I1)권영경: 변화가 아무래도 있지요. 왜냐면은 다 뭐 남이 보면, 내가 생각해도, 효자고, 효부고, 하늘이 준 복이라고 하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래도, 가령 이제 일례를 들어서, 이 집에 이제 뭐 커튼을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러는데, 나는 그런 내가 좀 안목도 있고, 잘 안다. 이러는데 벌써 이제 자식이, 사십이 사십대 후반이 넘으니깐 **저희들 나름대로 다 주관이 있고, 그게 있다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의논 없이 할 경우가 있더라고, 며느리가, 그럼 뭐 저도 사회 나가면 전 박사님에 대우받고, 뭐 나보다, 난 세대교체라는 걸 분명히 나는 찬성해요. 아무리 뭐 나이 먹은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도, 젊은 사람만큼 빨리 머리가 회전되는 거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 그럴 때 내가 섭섭하기보다는, 섭섭 안했다 해도 거짓말이고, 섭섭도 했지만, 내가 깨달았지, …(중략) (I2) 맞아. 그런 점이 달라지는 거 같애. **이제 차차 차차, 내가 완전히, 이제 이 마음까지 씩비워야 돼. 응? 마음을 비워야지.**

(중략)

(I3)권영경: 그게, 그런 게 참 **이렇게 회열을 느낀 대니까, 손주들 때문에**…(중략)

(Q2)연구자: OO이가 지금 아주머니께, 제일 굉장히 기쁨을 주는 아이, 기쁨을 주는 관계네요?

(I4)권영경: 그러니까 기쁨조라니까. 우리집에 기쁨조!

(J1)구경하: **유일한** 기쁨조. 개 얘기할 때는 얼굴에 광이 난대니까.

(I5)권영경: 개 때문에 혼자 길가다가도 웃고, 무슨 얘기한 게,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다가도 밤에 어떤 때 잠이 안오면 혼자 웃어, 그리고 참 살가와. 그리고 어디 저희 스키장 갈 때 내가 한두 번 안 따라갔지. 그리고 극장 구경갈 때, 주일 안쉬면 아프니까 안가잖아. 그랬더니, 극장 때는 이제 OO이가 “할머니 우리가 어디 갈 때는 같이 영화도 보고 해야지, 다리 아프다고 안가고 그러면, 점점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진대. 뭘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 저거 틀 줄 하나도 모르거든, 리모콘 밖에, “아, 그래, 알았어.”

위의 인용문에서 I1, I2와 I3, I4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I1, I2에서 새 집으로 이사과 상의 없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며느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이 우회적으로(I1, 진한 글씨) 표현한다. I1, I2에 비해 I3, I4는 직접화법으로 표현도 명료하다. 한 집에 살지만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다른 감정을 딸 구경하씨는 “유일한 기쁨조”라고 해석했다. 권영경씨가 구술 내내 염두에 두고 어려워하는 아들, 둘째 며느리와의 관계를 암시해주는 표현이었다.

## 5. 규범과 성찰: 가부장적 사회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인식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이나 규범적 강제가 아닌,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태로 가기 위한, 그래서 그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돌봄을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각자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의 자율성, 관계적 자율성(the relational autonomy) 개념이 필요하다(마경희, 2008; Frazer, 1995; Mackenzie and Stoljar, 2000).

자율성은 달리 표현하면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으로, 외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Clements, 1996: 26).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지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이다. 여기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 즉 비판적 사고능력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관계적 자율성이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동기적 구조를 성찰하고, 그 성찰에 기반하여 자기 삶의 억압적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Mackenzie and Stoljar, 2000: 13).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애 구술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성찰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층의 경우 노인 복지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고(여정순씨), 젊은 세대가 이끄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노인으로서 자신의 변화에 대한 성찰을 지속해가려는 노력(권영경씨)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러나 여정순씨의 경우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권영경씨는 며느리와 소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젠더적 관점에서 가부장적 사회 내 여성의 위치를 성찰하고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순영씨에게서 발견된다. 극단적인 외로움 속에서 며느리와의 소통마저 어려웠던 그녀가 며느리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된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위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서부터이다. 그녀의 경험은 자기 생애 전체를 통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깨달음(epiphany)으로서 삶의 핵심적인 경험(nuclear episode)을 거치면서 스스로 지독한 성찰 끝에 얻게 된 인식이다(Denzin, 1989). “며느리라는 거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영원히 숙제”라는 현실적 체험 속에서 “같은 여자로서 나도 이 집에 들어왔고 너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같은 여자니까는 서로 힘들 때 얘기하고…”라는 여성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고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순영씨의 서사는 삶의 주요 에피퍼니(major epiphany)의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순영: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꿔봤죠. “아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가정의 평화가 아니지. 내 집에 들어온 아이를 내가 이해하자. 모든 걸 다 이해해주자.” 그때부터 이해라는 단어가 내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난 예전에는 이해라는 걸 몰랐거든요 내 식구만 살았기 때문에 뭘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걸 몰랐는데 아 이제 처음 우리집에 낯선 사람이 온 거 아니예요? 우리가족만 있다가? 낯선 사람이 하나 왔으니까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나. 아무것도 아닌 이 집에 정말 우리 아들 하나만 좋다는 거 하나로 딱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재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 재하는 일은 나하고 안 맞더라도 이해하자 이해하게 되면은 다 받아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한 육 개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중략) 아 그래서 며느리라는 거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영원히 숙제다. 나는 나 자신이 참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난 착해서 누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정말 희생적으로 잘해줄 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딱 안 되더라구 그래서 나는 아 그래 넌 참 위선자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다르냐. 딱 보고 나니깐 그렇게 변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해라는 걸 하게 되니깐 다 쉬워졌고 그리고 개발도 존중하게 되고 배울 점도 있고 서로 인제 애길하면서리 그래 이제 같은 여자로서 나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고 너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같은 여자니까는 서로 힘들 때 얘기하고 내가 너한테 못마땅해 얘기를 하면 너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도 이제 그러면서 서로 숨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살자. 그러면서리 대화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게 되니까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어머니 저도 엄마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할라고 처음에 며느리가 교제할 때는 정말 팔짱도 끼고 정말 어스름없이 정말 잘했어요. 딱 며느리도 시집을 딱 오게 되니까는 내가 하는 삶을 못 따라오게 되니까는 자기도 긴장이 되니까는 거리감이 생긴 거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우리며느리도 하는 소리가 “어머니 그래요 저도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엄마처럼 이렇게 생각할라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너도 그게 잘 안 되냐 나도 그게 잘 안되더라.” 그래서 참 이게 그 삼십 이상 그렇게 거의 정말 이십 몇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만났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남성중심의 혈연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지위의 불안정성, 규범적 강제성,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대립적 관계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통찰을 시작하면서 이순영씨는 며느리와 자신의 동질성을 찾고 마음을 열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위선자”라고까지 몰아붙이면

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자신들의 존재론적 위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립성을 인식해 가는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부장적 사회의 가족 내 돌봄 관계에는 이미 규범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 남성의 가족으로 들어가 타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며느리의 상황과, 평생을 쏟아 힘들게 구축한 자신의 가족이라는 ‘성(城)’에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어머니의 상황은 결국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여성을 타자화해 온 관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돌봄의 의무를 지우는 것조차 옳지 않다고 이순영씨는 이야기한다. 그녀는 가능한 한 자신이 건강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0대의 나이에도 직접 운전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그녀는 ‘며느리 돌봄’이라는 전통적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여성노인의 삶을 보여준다. 이순영씨의 사례는 규범적으로 내재된 거부와 단절 상황에 직면한 여성이 성찰적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극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타자성과 종속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

## 6. 맺는 말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요구가 강력하게 등장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족 돌봄의 규범을 내면화해 온 노인 세대가 그러한 규범적 기대가 깨어질 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가 이 연구의 관심이었다. 3인의 여성노인에 대한 구술생애사와 그들을 돌보는 며느리, 딸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인들은 자식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인식이나 홀로 외롭다는 느낌, 또는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절의 상황에서 노인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거나, 삶의 의지를 잃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가부장적 가족관습 속에서 자신과 며느리의 위치가 갖는 동질성을 인식하고 며느리 돌봄에 대한 기대 역시 여성에게 지워진 차별적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홀로 남아 있다는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이 여성노인은 며느리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자신과의 치절한 싸움 속에서 시어머니이지만 며느리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내면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암시하는 것은 노인 돌봄 양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돌봄의 두 주체—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가족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이해라는 젠더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시어머니인 여성노인의 경험을 주로 다루었지만 며느리 여성 역시 같은 관점에서 시어머니의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자원으로서 젠더 의식이 기존 규범이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성찰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소수의 여성노인들을 인터뷰 참여자로 설정함으로써 전체 여성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노인들의 경험과 해석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에서 그들이 직면한 변화와 그들의 생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윤정·최혜경(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2권 2호, 63-83쪽.
- 김정석(2005), “한국 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25권 4호, 1-11쪽.
- 김혜경·마경희·석재은 외 엮음(2011), 『노인돌봄: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좋은 돌봄을 위하여』, 파주: 양서원.
- 마경희(2008), “돌봄의 정치적 윤리로서 관계의 자율성”, 한국가족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08.5.17).
-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
- \_\_\_\_\_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8권 4호, 101-132쪽.
- \_\_\_\_\_ (2007), “도덕, 정치, 경제의 연관에서 본 효도법 담론의 의미”,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9권 3호, 31-62쪽.
- 박영란(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관련 쟁점”, 한국여성학회, 『지구적 자본주의와 한국여성학의 지평확대』, 제21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05.11.19).
- 서인순(2002), “치매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며느리의 경험: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과 박사학위논문.
- 석재은(2006), “노인수발보장의 제도화와 젠더쟁점”,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자료집(2006.11.10).
- 신경아(2010), “노인 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전(前)과 후(後)”,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22권 4호, 63-94쪽.
- \_\_\_\_\_ (201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한국사회학

- 회, 『한국사회학』, 제45권 4호, 64-96쪽.
- 우국희(1997), “치매노인 수발인의 수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가현(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의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18권 1호, 75-90쪽.
- 이가옥 편저(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서울: 나남출판.
- 이경자(1995), “치매노인의 간호문제와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제15권 2호, 30-51쪽.
- 이명선·이봉숙(2006), “치매환자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에 관한 대화 분석”, 대한간호학회, 『대한간호학회지』, 제36권 7호, 1253-1264쪽.
- 정경희·오영희·석재은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웅(2006),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 한경혜(1998), “만성질환 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 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제18권 1호, 46-58쪽.
- 허라금(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115-145쪽.
- Clements, G.(1996), “Public Applications of the Ethic of Care”, in *Care, Autonomy, and Justice: Feminism and the Ethic of Care*, Boulder: Westview Press.
- Daniels, N.(2002), “Justice and Long-Term Care: Need We Abandon Social Contract Theory?”,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 Dean, H.(ed.)(2004), *The Ethics of Welfare: Human Rights, Dependency*

- and Responsibility*, Bristol: The Policy Press.
- Denzin, N.(1989), *Interpretive Biography*, Newbury Park: Sage.
- Fine, M., and C. Glendinning(2005), “Dependence, In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Revisiting the Concepts of Care and Dependency”, *Aging and Society*, 25, pp. 601-621.
- Fraser, N.(1995),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Socialist’ Age”, *NLR* 212.
- Kittay, E. F.(1999), *Love’s Labou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2), “Can Contractualism Justify State-Supported Long-Term Care Policies? Or, I’d Rather Be Some Mother’s Child”, in *Ethical Choices in Long-Term Care: What Does Justice Require?*, WHO.
- MacKenzie, C., and N. Stoljar(eds.)(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evenhuijsen, S.(1993), “Paradoxes of Gender: Ethical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Care in Feminist Political Theory”, *Acta Politica*, 28(2), pp. 131-149.
- \_\_\_\_\_ (1998),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Morality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 \_\_\_\_\_ (2003), “The Place of Care: The Relevance of the Feminist Ethic of Care for Social Policy”, *Feminist Theory*, 4(2), pp. 179-198.

〈Abstract〉

## Elder Care and Gender: An Ethnography on the Reflection of Defamilization

Kyung-A Shin

Gender is a key factor in elder care. This is because most of the care-givers as well as the care-takers are women. This study looks into what old women have experienced in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elder care and how they feel being faced with such rapid change in Korea. In order to collect oral histories, 3 elderly women were interviewed, while their daughter or daughter-in-law participated in separate interviews.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shows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sympathetic understanding between the care-giver and the cared. The case of Yeo Jung-sun can be defined as 'an angry mother and her daughter-in-law hoping to be free from the burden of care'. The case of Kwon Young-kyung shows 'an adaptable mother as a result of her daughter-in-law being absent'. Lee Sun-young's narrative described 'a lonely mother whose daughter-in-law'. Nevertheless, Lee Sun-young has made a great effort to understand her daughter-in-law by using insightful interpret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triarchal family relationship. Her story proves the fact that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cared-for elder and her

care-giver, gender perspectives are needed to allow us see through the eyes of women within the patriarchal family and understand their positions.

**KEY WORDS:** elderly care, oral history, care-giver, care-taker,  
patriarchal family